

영산강 시대를 열자

역사·문화·관광 종합체 ... 도심에 휴식이 흐른다



‘포도주의 수도’로 이름을 떨친 프랑스 보르도를 흐르는 가론강은 포도주의 뱃길이었다. 20세기 뱃길이 끊기면서 이 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보르도 시는 도시 리모델링 사업인 ‘도시 모델 계획’을 통해 가론강을 되살렸고, 명소가 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7> 해외 성공사례

물은 생명이고 풍요이면서, 죽음이자 재앙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만큼 물이 소중하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어느 나라이건 물관리를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였다. 그래서 치수(治水)에 온 힘을 쏟았다. 현대사회 들어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 기상 이변 등으로 치수는 더욱 중요되고 있다. 반복되는 물 부족과 물 난리 탓이다. 물은 또 문화를 잉태했다. 4대 문명 발생지가 강이었고, 현재도 강은 문화와 어우러져 도시 발전을 이루고 있다.

■ 네덜란드 ‘라인강’

국토 25% 해수면보다 낮아 홍수 위험 주민 이주시키고 저류공간 늘려 해결



이저르강 복원전. 강폭이 좁아 홍수 위험이 많았다.



복원 후 강폭이 넓어져 유속도 줄어 들었다.

◇네덜란드 라인강의 ‘룸 포 더 리버’=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 홍수의 위협을 받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일찍부터 물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해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그 대표적 정책이 ‘룸 포 더 리버(Room for the River)’다. 이 정책은 라인강의 제방을 계속 높이고 보강해 왔던 기존 정책을 탈피해 강의 홍수 수용 공간을 확 늘려 물의 위협에 대처하자는 개념의 치수정책이다. 제방을 더 높게 쌓아 홍수를 방어할 수도 있지만, 만약 제방이 붕괴되거나 물이 넘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존 수자원 관리정책에 획기적 변화를 준 것이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는 우선 강 주변 저지대에 사는 주민을 높은 지대로 이주시킨 뒤 제방을 후퇴시켜 홍수에 대비할 저류공간을 늘렸고, 도시 구간의 병목지역엔 방수로를 건설했다. 또 퇴적에 의해 높게 형성된 고수부지와 주 수로를 준설해 홍수소통 공간을 확보했고, 홍수터 준설로 형성된 모래 웅덩이를 이용해 하천환경도 복원했다.

2015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초당 1만6000㎡ 홍수량에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매년 물난리로 인해 반복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 프랑스 ‘가론강’

도시계획 세워 강변 리모델링 물거울 만들어 보르도 명물로

◇프랑스 가론강의 ‘도시 모델 계획’=‘포도주의 수도’로 이름을 떨친 프랑스 보르도는 가론(Garonne)강이 흐른다. 중세 영화를 누렸던 보르도는 가론강이 뱃길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항구기능을 잃으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멀어졌고, 강물은 썩어 골치거리로 전락했다. 시민들은 강변 개발을 요구했고, 국무총리를 지낸 알랭 쥐페(Alain Juppe)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쥐페 시장은 ‘도시 모델 계획(PPU·Projet Pilot Urbain)’ 세워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된 이 사업은 보르도 인근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보르도 도시공동체(CUB·Communaute Urbaine de Bordeaux)가 주도했다. 또 부르스 광장 인근 강변엔 물거울(Le moroir d'eau)이 조성돼 보르도의 명물이 됐다. 물거울은 대리석 바닥에 얇게 물을 깔아 강변에 늘어난 중세 건물의 잔상이 비추도록 고안했다. 한 여름엔 물 줄기와 수증기가 위로 솟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독일 ‘이저르강’

콘크리트 직선화로 생태계 파괴 제방 대신 물그릇 키워 재자연화

◇독일 이저르강 ‘이저르 플랜’=19세기 말 독일 뮌헨의 이저르강은 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직선화했다. 하지만 인공 구조물로 인해 강폭은 좁아졌고, 그러다 보니 홍수위험이 커졌다. 알프스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이른 봄이나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에는 강변 주민들은 강물이 넘칠까봐 밤잠을 설쳤다. 하천 생태계도 파괴됐다. 곳곳에 설치된 수중턱과 강변 생태계를 가로막는 홍수저류용 고수부지, 빨라진 유속으로 인한 물고기 서식·산란지 손실 등이 원인이었다. 그래서 콘크리트벽을 걷어내 강폭을 넓혀 유속을 늦추고, 준설을 통해 수위를 낮췄다. 또 직선던 강을 최대한 자연상태로 복원했다. 특히 2005년 대홍수가 난 자리에 돌이나 제방을 쌓는 방법 대신 강변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물을 가둘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0년부터 뮌헨시가 추진한 아자르강 재자연화 프로젝트인 ‘이저르 플랜’이다. 이 사업의 책임자 클라우스 아르젯 박사는 “이저르 플랜의 주목적은 홍수방지이고, 그 다음이 자연 복원과 시민 여가 공간 확보”라며 “하천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저르 플랜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반대 목소리에 대한 설득과 의견 반영에 있다. 자생식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중요 식생을 타 지역으로 옮겨다가 사업 후 다시 가져와 심는 방법을 도입했다. 홍수 방재 대책도 과학적인 안정성 검증을 위해 뮌헨 공대의 수리모형 실험 및 전문가 세미나 등이 실시됐고, 시민 참여

유도와 설득을 위해 수많은 공개 토론회를 거쳤다. 이같은 노력은 환경단체와 학계,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며 호응을 얻었고, 사업 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스페인 ‘네르비온강’

대홍수 폐허된 도심 공기업서 재개발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등 문화도시로

◇스페인 네르비온강의 ‘빌바오 리아 2000’=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철강·조선업으로 호황을 누렸던 스페인 빌바오는 1980년대 들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1983년 700여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대홍수로 시들은 더 깊어졌다. 네르비온강이 넘쳐 수변 도심지는 폐허로 전락했고, 산업활동이 멈춰 시민 8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빌바오는 이런 시련을 딛고 20여년만에 문화도시로 재창조됐다. 극적인 반전은 ‘발상의 전환’과 ‘민관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빌바오 리아 2000’은 그 원천이었다. 비영리 공기업인 ‘빌바오 리아 2000’은 항만·철도 등 방치된 산업지대를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넘겨받아 개발한 뒤 이익을 다른 구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쳤다. 이에 따라 하역장과 조선소에서 문화지대로 변모한 ‘아반도 이바라’, 철도역 주변을 주택지로 바꾼 ‘이메츨라’, 항만시설을 체육공원으로 개조한 ‘바리칼도’ 등지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도시의 면모가 달라졌다. 특히 1991년 건설비 1억 달러를 내놓았다며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했다.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가 한 해 빌바오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수입액 2000억원, 고용유지 4000여명 등으로 추정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결을 이 행사가”

-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 객실 50이,호텔인 및 조식뷔페 (30종) 무료제공
-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년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여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에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점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수입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